

# 북아시아 지역 교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새**로 조직된 지역 회장단으로서, 우리는 가르히코 야마시타 장로님께서 그 동안 지역 회장단으로 봉사해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분의 사랑과 시간과 신앙을 나눠주셨으며 우리에게 삶의 방식에 있어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장로님께서 지역 칠십인으로 계속하여 이 지역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게 되신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복음의 많은 축복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께 우리의 사랑을 전하며, 또한 복음이 참되고 그것이 우리 시대에 회복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간증을 전합니다.

최근에 성찬식 모임에서 한 개종자가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자신이 새로운 개종자로서 믿고 소망했던 것들이 참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한 방법으로 주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정말로 기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교회의 회원으로 자신이 느꼈던

기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녀가 그간 신앙으로 생활하고 노력해 온 것에 대해 주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충실했습니다. 그녀는 행복했으며, 교회의 회원이 되고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훌륭하고 기쁜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충실한 자매님의 부지런함과 인내, 그리고 약속된 축복을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고대하는 신앙으로 인해 복음은 뿌리를 내렸고 약속된 열매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앨마서 32:41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충실하다면 복음은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복음은 우리가 성장하도록 돕고, 필요할 때 위안이 되며,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희망을 주고, 개인과 가정에 기쁨을 가져옵니다.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간증을 전할 때 우리는 교회의 “많은” 충실한 회원들이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 것들을 진실로 그들의 눈으로 보고 기뻐하였더라”(이더서 12:19)는 경전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친구들과 가족에게 복음을 나누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축복이자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은 길거리에서, 그리고 방문을 통해 구도자들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충실한 교회 회원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는 것은 회원들입니다. 우리가 찾는 행복과 기쁨을 친구들과 가족과 나누어야 할 책임과 축복은 우리들 교회 회원들에게 있습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믿음으로 구하고”,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94~97쪽 참조)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신앙을 찾고 행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누가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뒤 우리는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그들을 선교사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신앙과 용기를 가져야 하며, 계속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고 복음 공부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일과 더불어, 우리는 한때 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저활동 회원들은 교회에 매우 소중하며, 그들 중에는 우리 자신들의 형제와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가족이며 친구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여 그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들을 환영해야 하며 돌아온 모든 이들을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늘 기억합니다. 최근의 연차대회에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은 회원 선교 사업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조셉 스미스가 했듯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한다면, 단지 소망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기도한다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놀라운 방법으로 전진할 것입니다.”(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의 “믿음으로 구하고”,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94~97쪽 참조)

많은 분들이 새로운 지역 회장단으로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전에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회원들에게 선교사적인 마음가짐을 가질 것과 성전에 갈 것을 권고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주에 대해 간증하고 복음이 회복되었으며 조셉 스미스가 주님의 선지자였고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오늘날 주님의 선지자라는 간증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강화하기 위해 일할 것이며 물론경이 참되다는 여러분의 간증에 우리의 간증을 더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역 회장단으로서,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자신이 알고 있는 저활동 회원들에게 어떻게 손을 내밀어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기도로서 인도와 지혜를 구하며, 그 응답으로 얻은 영감에 따라 행동하시기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진지하게, 행동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교회의 회원이 아닌 친구들과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도울 방법을 찾기 위해 기도하시기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모든 분들이 주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이며 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해 주시기를 요청하며, 그럴 때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놀라운 방법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참됩니다. 이 사업은 주님의 것이며 우리는 이에 참여하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어디에 있든 그분의 교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신앙으로 기도하고 신앙으로 행동하기를 소망합니다. ■

여러분의 진실한,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게리 이 스티븐슨

데이비드 에프 에번스

최윤희

본 기사는 2008년 8월호 영어판 프렌드에 실린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회장님의 말씀입니다. 북아시아 지역 회원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번역해서 소개합니다.

나야개래... 그리하면 내가 너로 내 손에 든 도구를 삼아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리라...(엘마서 17:11)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교회에서 귀환 선교사들이 선교 임지에서 막 돌아와서 전하는 말씀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씀에서 영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나이를 먹고 성장하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전쟁이 있었고, 그 결과로 각 와드가 보낼 수 있는 선교사의 수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선교 사업을 늘려야 했지만, 저는 열아홉 살의 나이에 선교 사업을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감독님이 오늘 오후에 너를 좀 보자고 하시더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감독실에 들어갔을 때, 감독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이비드, 우리 와드가 선교사 한 명을 더 보낼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 감독단은 누구를 보내야 할지 기도했고, 바로 지금이 주님께서 데이비드 네가 선교



칠십인의 일원인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장로와의 인터뷰 중 발췌, 김벌리 리드

사업을 하길 원하시는 때라고 말해주고 싶구나.” 저는 어안이 병병했습니다. 감독님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께서 늘 선교 사업을 가라고 말씀하셨고, 제 어머니도 제가 선교 사업을 하기를 원하셨으며, 저도 선교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제게 “주님께서 바로 지금 네가 이것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감독님께 제가 일주일 정도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아도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그런 다음 차를 타고 한 시간 정도 운전하며 생각에 잠겼고, 결국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감독실로 가서 문을 노크했습니다. 제가 문을 열었을 때, 감독님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계셨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채 말입니다.

그분이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기에 앉아계시는지 궁금해 저는 여쭙어보았습니다. “감독님, 왜 아직



여기에 앉아 계신 거예요?” “너를 기다라고 있단다.” “감독님,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다면, 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분이 명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감독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신다면,

순종하십시오. 초등학교 교사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하신다면, 예 라고 대답하십시오. 비록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날 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제게 닥친 어려움 중 하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선교 사업을 떠날 때가 가까워지면서, 저는 벌써부터 집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떠나기로 한 전날 밤, 저는 지독한 외로움에 휩싸였습니다. 방에 앉아 부모님께 사랑과 간증을 담은 편지를 쓰는 동안, 눈물이 편지지 위에 푹푹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때 어머니께서 노크를 하시고 제 방에 들어오셔서, 저를 안아주시고 제 뺨에 입을 맞추셨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이비드,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엄마가 약속하마.” 바로 그 순간부터 제가 느끼던 모든 걱정들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제 신앙을 강화해 주었습니다.

그 후 저는 엘마서 56장 47~48절에 나오는 힐라만의 아들들과 그들의 어머니에 관한 경험에 대해 읽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는 가르침을 그들의 어머니에게서 받았었더라.

“또 그들은 그들의 어머니의 말을 내게 들려주었나니, 우리의 어머니들이 이를 아셨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나이다 하였느니라.”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저는 특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 구절에 나온 내용과 비슷한 경험을 했음을 알았습니다. 제 어머니의 신앙으로 인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청년

용사들과 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뿐 아니라,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제가 느낀 느낌과 똑같은 느낌을 가졌던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몰몬경을 읽을 때, 그것이 여러분을 위해 쓰여졌음을 기억하십시오. 상황과 시간은 다를지라도, 여러분은 사람들이 오래 전 경험했던 것과 동일한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며, 같은 교훈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그분이 명하시는 것을 할 때, 우리가 이를 통해 무엇을 배우게 되고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일본에서의 제 선교 사업은 그 이후로 제 앞에 펼쳐진 여러 위대한 경험들의 시작이었습니다. 수년이 지나 저는 선교부 회장으로 일본에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뒤에는, 총관리 역원으로 다시 일본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 제 어머니께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날 감독님과 가졌던 그 점점으로 인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머니는 답장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나는 그렇게 상상했단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선한 일들을 하도록 요청하실 때, 그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이 있고 또한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여러분이 부모님께 순종할 때, 그분들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또한 기뻐하시며, 그로써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





작열하는 태양, 무더운 공기, 잠 못 드는 열대야. 2008년 여름은 그 어느 해보다 뜨겁다. 기온이 1도 높아질 때마다 폭염을 피해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의 수는 더욱 늘어난다. 이 무더운 여름, 후기 성도 젊은이들의 피서는 청소년 대회와 청년 대회에서 시작된다. 태양을 녹일 만큼 뜨거운 열정과 바람처럼 시원한 웃음이 함께했던 청소년 대회와 청년 대회 현장으로 떠나본다.

# 우리들의 여름 이야기

## 청년 대회에서 인생을 배우다

2008년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서울 강서 스테이크와 남 스테이크, 그리고 북 스테이크와 동 스테이크, 안양 스테이크와 청주 스테이크, 강릉 지방부까지 7개 지역의 청년들이 모인 이번 대회는 '나의 인생(My Life)'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청년 대회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선정한 이 주제는 여러 활동 속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특히 3박 4일의 대회 기간을 인생에 비유해서 첫째 날은 '유년기,' 둘째 날은 '청년기,' 셋째 날은 '장년기,' 그리고 마지막 날은 '노년기'로 설정한 진행은, 그에 걸맞은 활동과 더불어 참석자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유년기인 첫째 날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지를 적은 종이를 묻는 타임캡슐 활동으로 시작해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살리는 여러 놀이들을 하였다. 둘째 날 청년기에는 문자 그대로 젊음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오리엔티어링과 공연이 이어졌다. 셋째 날에는 영을 고양하고 생각의 깊이를 넓힐 수 있는 세미나와

주제 성구 활동을 통해서 장년기를 체험할 수 있었다. 청년 대회의 마지막 날이자 인생의 마지막인 '노년기'에는 첫째 날 묻었던 타임캡슐을 꺼내서 3박 4일 동안의 자기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간증을 나누었다.

이번 청년 대회도 청년들이 모여서 우정을 쌓고, 즐거움을 나누는 점에서는 어느 때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일정한 주제를 정하고 각 활동을 주제에 맞춰서 준비하고 진행하는 방식은 신선하고 재미있었다는 평가를 얻었다. 특히 청년 대회 기간을 인생에 비유했다는 점, 유기적으로 맞물린 활동들을 통해서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 청소년 대회에서 자신을 이기다

지난 7월 31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뜬다는 간절곶 일대를 생기 넘치는 눈빛으로 걸어가는 일군의 청소년들이 있었다. 내리쬐는 태양도, 관광객의 호기심 어린 시선도 이들의 발걸음을 막지는 못했다. 하계 스카우트 야영 및 청년 야영을 위해 무거운 짐을 메고 길을 걸었던 이들은 바로 울산 지방부 청소년이었다. 8월 2일까지 계속된 울산 지방부의



하계 청소년 대회의 테마는 행군.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어려움 속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신앙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계획된

이 대회는 첫째 날 간절곶 일대 탐험을 시작으로 대장정에 올랐다. 간절곶에서 역사유적지를 돌아본 청소년들은 야영지를 확보하기 위해 약 6킬로미터를 걸었다.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이미 지친 상태였지만 청소년들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었다. 야영지에 도착해서 텐트를 치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모두 청소년들의 몫이었다. 식사 후에는 그 옛날 개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함께 둘러앉아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둘째 날부터는 본격적인 행군이 진행되었다. 아침 일찍 야영장을 정리한 후, 반별로 약 12킬로미터를 걷기 시작했다. 뜨거운 햇살과 무더위 때문에 낙오하는 청소년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서로를 도우며 도보 여행을 완주했다. 힘이 남는 청소년은 친구의 짐을 들어주었고,



스티븐스 장로와 최윤환 장로가 청년 대회에 참가한 청년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대열의 선두에 서서 깃발을 든 청소년은 더욱 힘차게 걸으며 다른 청소년들을 격려했다. 공부하기에 바빠 늘 제대로 된 운동조차 할 수 없었던 청소년들은 '걸음'이라는 가장 단순한 운동을 통해 태양을 이기고, 열기를 이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겼다. 둘째 날 행군을 마치고 야영을 시작한 청소년들은 낮 동안의 고행이 언제 있었느냐는 듯싶게 포크 댄스를 배우며 청소년 대회의 마지막 밤을 즐겁게 마무리했다.

〈기사 제공: 강현오 형제〉

## 청년 대회에서 영성을 키우다

청년 대회에서 가장 즐거운 모임은 무엇일까? 재능을 발표하는 시간, 대대원이 단합할 수 있는 활동 시간, 열정 가득한 무도회 등 각자 대답은 다를 것이다. 하지만 지난 8월 6일부터 남해에서 펼쳐진 청년 대회에 참석한 사람이라면 아마 한 목소리로 '세미나'를 외칠 것이다. 자칫 지루하고 따분한 모임으로 여겨질 수 있는 세미나, 그러나 얼마나 잘 준비되고, 얼마나 훌륭한 말씀이 오가고, 참석한 청년들의 마음이 얼마나 열려있는가에 따라서 세미나 또한 얼마든지 즐겁고 신나는 모임이 될 수 있다. 푸른 파도가 넘실거리는 남해에 모인 부산, 마산, 전주, 인천, 그리고 서울 등 전국 각지의 청년들은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스티븐스 장로와 최윤환 장로의 말씀을 통해 바로 그런 세미나를 경험했다. 먼저 연단에 선 최윤환 장로는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으로 새롭게 부름

받은 스티븐스 장로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했다. 최윤환 장로는 청년들에게 "청년 대회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참석했는지를 물으며 "우리가 목표를 정할 때 그 목표가 선한 목표인지 아닌지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라고 권고의 말씀을 전했다. 또한 "여러분이 가진 목표가 선한 목표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으로 부름 받아서 8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스티븐스 장로는 남해 청년 대회에서의 세미나가 첫 방문이자 첫 말씀이었다. 만면에 웃음을 머금고 말씀을 시작한 스티븐스 장로는 젊은 시절에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언급하며 조셉 스미스와 에머 스미스, 그리고 올리버 카우드리 등 초기 교회를 이끌었던 인물들이 모두 20대 초반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또한 스티븐스 장로는 인생의 균형에 대해 설명하며 영성, 신체적 건강, 지적인 능력, 정서적인 능력, 사회성 등을 고루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스티븐스 장로는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 이 시기는 균형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할 때 주님은 축복하십니다."라고 말씀하며 청년들을 격려했다.

## 청소년 대회에서 지도력을 배우다

지난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부산 함지골 수련원에서 열린 부산 스테이크 하계 청소년 대회는 일종의 모험이었다. 장소 선정을 제외한

모든 준비, 예를 들면 교통편 섭외와 프로그램 계획, 그리고 홍보 등의 일들을 모두 청소년들이 맡은 것이다. 청소년들은 대회 준비 기간과 시험 기간이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던 일을 계획하면서 실수를 경험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다.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준비 위원회는 프로그램 진행 담당자, 구급 담당자, 대대장, 부대대장 등 서로의 역할 분담을 확실히 했고, 나이 어린 청소년을 돌봐주고 이끌었다. 청소년들은 이번 대회의 주된 목적 또한 스스로 정했다. 다름 아닌 '우정 증진.' 부산 스테이크와 부산 서 지방부가 합쳐지면서 양쪽 지역 청소년들 간에 생긴 거리감을 해소하고 서로 더 친해 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였다. 시원한 물총 싸움, 교회 기초 지식을 묻는 OX 퀴즈,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주제를 바탕으로 한 대대별 연극 발표 등 모임의 계획부터 진행까지도 모두 청소년의 몫이었다. 때로는 실수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청소년 대회를 마친 지금, 부산 스테이크 청소년들은 그 마음의 깊이가 부족 깊어졌다. 고등학교 3학년이면서 대회 준비 위원장을 맡은 조영진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이번 대회를 통해 부산 스테이크 청년들은 지도자가 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을 수 있었습니다." ■



사물놀이를 배우는 청년 독신들

이번 호 복지 이야기인 “결심”과 관련해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키면서 얻게 된 축복을 전하는 형제님의 편지를 요약해서 소개합니다.



### “배꼽의 건강과 ... 뼈의 골수를”

김기연 형제(부산 스테이크, 광안 와드)

안녕하세요? 부산 스테이크 광안 와드의 김기연 형제입니다. 지난 8월호 리아호나에서 ‘지혜의 말씀에 순종함’과 관련된 사연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이렇게 편지를 띄웁니다. 저는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건강’이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 취미는 마라톤인데 42.19킬로미터를 뛸 수 있는 체력은 지혜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공군 조종 장학생 시험에서 신체 검사와 체력 검사를 모두 합격하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전투기 조종사 시험 응시자 중 80~90% 사람들이 신체 검사와 체력 검사에서 불합격을 하는데 제가 이런 까다로운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건강 유지의 비결을 물어보면 저는 적극적으로 지혜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일찍 잠자리에 들고 일찍 일어나며 게으르기를 그치고 부지런하며 몸에 해로운 음식은 절대 먹지 않으며 과식도 하지 않고 술, 담배, 커피, 녹차, 홍차를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혜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 주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지혜의 말씀은 모든 계명 중에 가장 기초적인 계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무릇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며 행하기를 기억하는 모든 성도는 그들의 배꼽에 건강과 그들의 뼈에 골수를 얻을 것이요, ... 달려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는 교리와 성약 89편 18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이 계명에 따를 때 그분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



### 대전 스테이크 <이소영 기자>

청소년 영어 캠프-지난 2008년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대전 스테이크에서는 청소년 영어 캠프 모임이 있었다. 이번 영어 캠프는 올 초인 1월 이후 두 번째 갖는 모임이었다. 계룡산 아랫자락에 위치한 갑사 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된 이번 모임은 24명의 원어민 선교사들에 의하여 모든 프로그램이 영어로 진행되었다. 특이할 점은 총 137명의 청소년 참석자 중 절반 이상인 71명의 청소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회원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모두 회원들이 직접 초대 한 이웃이나 친구들이었다. 영어 능력 향상과, 선교 사업, 우정 증진을 목적으로 진행된 이 캠프에서는 스포츠 활동, 12개의 영어 부스 활동, 조별 발표, 세미나, 포크 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 세미나에서는 현재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영어 교육을 하는 김미남 형제와, 대전 선교부의 페리튼 선교부 회장이 연사로 초대 되었다. 한편 이 모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대전 스테이크 회장단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설양환 회장은 각 와드 청소년들을 방문하여 선한 행실로 생활하도록 권고하고 친구들에게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재미있고 유익한지 자연스럽게 소개 하도록 격려해왔다.

### 부산 스테이크 <권정미 기자>

합창 페스티벌-지난 2008년 7월 5일 부산 스테이크 수정 와드에서는 합창 페스티벌이 열렸다. 작년에 열렸던 부산 스테이크 예술제의 맥을 잇는 이번 모임은 합창을 통해서 와드 회원들이 단합하고 우정을 증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이날 모임은 당초 예상인 200명을 훌쩍 넘는 회원이 참석했는데, 모임에 참석한 각 와드는 독특한 의상과 함께 잘 준비된 합창을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다. 특히 ‘우리들은 니파이처럼’을 부른 영도 지부 회원들은 회원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부 회원 모두가 참여해서 감동을 선사했다. ■

###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해외 2명



김영준 자매  
창주 스테이크  
홍덕 와드  
워싱턴 디시 남  
선교부



최현준 장로  
인천 스테이크  
주안 와드  
캘리포니아 에너하임  
선교부